

糖尿病에 대한 四象醫學論述과 中醫學論述 比較研究

金福男* 玄雪梅*

洋醫에서의 糖尿病은 飲多, 食多, 尿多하고 身體가 여위고 尿가 혼탁하고 尿恬味한 특징이 있다. 四象醫와 中醫에서 糖尿病에 대하여 각기 不同한 論述을 하였는데 그 差異點을 比較하고 研究하는 것이 매우 必要하다.

交, 腎水不洩, 必火自焚, 以致渴者, 不宜備用凉心冷劑, 宜堅腎水”

4. 又說 ; “消腎爲病, 比諸消爲重, 古方謂之強中, 又謂之內消, 多因恣意色慾, 或餌金石, 腎氣既衰, 石氣獨在, 精水無所養, 故常發虛, 陽不交精出, 小便無度, 脣口乾燥.”

材 料

A. 發病原因에 대하여

中醫學理論

1. 『東垣十書·消渴證』說 : “陰陽別論云; 二陽結, 謂之消, 脈要精微論曰; 癰成爲消中, 夫二陽者, 陽明也, 手陽明大腸主津液, 消則目黃, 口乾, 是津液不足也, 足陽明胃, 主血, 熱則消穀善飢, 血中伏火, 及血不足也, 結者, 津液不足, 結而不潤, 皆燥熱爲病也, 此因數食甘味而多肥, 故其氣上溢, 轉爲消渴, 治之以除陳氣也.”

2. 『東垣十書·辨內外傷』說 ; “初勞役形質, 飲食失節, 傷之重者必有渴, 以其心火熾上, 克於肺金, 故渴也.”

3. 『證治要彙·消渴』說 ; “蓋燥熱在上, 虛冷在下, 陰陽不交, 所以成消渴”, “因色慾過度, 水火不

四象醫學理論

5. 李濟馬在『東醫壽世保元·少陽人胃受熱裏熱病論』說 ; “消渴者, 病人胸次不能寬遠闊達, 而陋固膠小, 所見者淺, 所欲者速, 計策鶻突, 意思艱乏則”而發生消病

6. 『東醫壽世保元·太陰人肝受熱裏熱病論』說 ; “張仲景消渴病, 小便反多, 如飲水一斗, 小便亦一斗, 腎氣丸主之, 論曰; 此病非少陽人消渴也, 卽太陰人燥熱也.”

7. 『東醫壽世保元·卷之二·泛論』說 ; “嘗見少陰人, 飲食倍常, 口味甚甘, 不過一月, 其人浮腫而死, 少陰人食消, 卽浮腫之屬而危證也, 不可不急治.”

B. 病因病機에 대하여

中醫學理論

* 中國延邊民族醫學研究所

이 논문은 제2회 사상의학 국제학술대회 제출 논문임.

8. 『黃帝內經素問·奇病論』說；“帝曰：有病口甘者 病名爲何？何以得之？岐伯曰：此五氣之溢也，名曰脾瘴 夫五味入口 藏于胃 脾爲之行氣精氣 津液在脾 古今人口甘也 此肥美治之以 除眞氣也。

9. 『千金方·論證』說；“凡積久飲酒，未有有成消渴，然大寒癸海而酒不凍，明其酒性酷熱，熱無以加，脯灸鹽鹹，此味酒客耽嗜不離其口，三觸之後，制不由已，飲 無度，咀嚼酢醬，不擇酸鹹，積年和夜，酣興不解，遂使三焦猛熱，五臟乾燥，水石且焦枯，在人何能不渴。”

10. 『證治要結·消渴』說；“上消，中消，心脾既如此熱，小便澀少而反無禁，蓋燥熱在上，虛冷在下，陰陽不交，所以成消渴。”

11. 『醫貫·消渴論』說；“數食甘美而肥多，故其上氣轉溢而消渴。”

四象醫學理論

12. 李濟馬在『東醫壽世保元·少陽人胃受熱裏熱病論』說；“大腸清陽上升之氣，自不快足，日月耗因而生此病也，胃局清陽上升而不快足於頭面，四肢，則成上消病，大腸局清陽上升而不快足於胃局，則成中消病。”

13. 『東醫壽世保元·太陰人肝受熱裏熱病論』說；“張仲景曰：消渴病，小便反多。如飲水一斗，小便亦一斗，腎氣丸主之。論曰：此病非少陽人消渴也，即太陰人燥熱也。……蓋此病原委，侈樂無厭，慾火外馳，肝熱大盛，肺燥太枯之故也。”

C. 治療法則에 대하여

中醫學理論

14. 『景岳全書·三消乾渴』說；“凡治消之法，最當先辨虛實，若察其脈證，果爲實火，致耗津液者，但去其火，則津液自生而消渴自止，若由眞水不足，則悉屬陰虛，無論上中下，急宜治腎，必使陰氣漸充，精

血漸復，則病必愈。”

15. 中醫學院內科學講義寫；上消，肺熱津傷，煩渴而多飲，口乾舌燥，尿頻量多，舌邊尖紅，苔薄黃，脈洪數，治法；清熱潤肺，生津止渴，方藥；消渴方加味，或可用白虎加入蔘湯。

16. 中消，胃熱熾盛，多食易飲，形體消瘦，大便乾燥，苔黃，脈滑實有力，治法；清胃瀉火，養陰增液，方藥；玉女煎加黃連，梔子，可用增液承氣湯。

17. 下消；(1)腎陰虧虛；尿頻量多，混濁如脂膏，或尿晷，口乾唇燥，舌紅，脈沈細數。治法；滋陰固腎，方藥；六味地黃丸。(2)陰陽兩虛，小便頻數，混濁如膏，甚至飲一瘦一，面色黎黑，耳輪焦乾，腰膝痠軟，形寒畏冷，陽萎不舉，舌淡苔白，脈沈細無力。治法；溫陽滋腎，固攝，方藥；金匱腎氣丸。

四象醫學理論

18. 『東醫壽世保元·少陽人胃受熱裏熱病論』說；“平心靜思，則陽氣上升，輕清而充足於頭面四肢也。此元氣也，清陽也，勞心焦思，則陽氣下陷，重濁而鬱熱於頭面四肢也。此火氣也，耗陽也。”

“上消 中消 裡陽升氣 雖則虛損 表陰降氣 猶持完壯故 其病雖險 猶能歲月支撐 以此也 若 夫陰虛午熱 飲水背寒而嘔者 表裏陰陽 俱虛損 所以爲病尤險 與下消 略相輕重 然能善攝身心服藥 十之六七 尙可生也 不善攝身心服藥 則百之百必死也 此證 當用獨活地黃湯 十二味地黃湯”

19. 又說；“上消 宜用 涼膈散火湯 中消 宜用 忍冬藤地骨皮湯 下消 宜用 熟地黃苦參湯 又宜 寬闊其心 不宜 膠小其心 寬闊則 所欲必緩 清陽上達 膠小則 所欲必速 清陽下耗” 又說；“少陽人 中消者 腹脹則 必成鼓脹 鼓脹不治”

20. 『東醫壽世保元·太陰人肝受熱裏熱病論』說；“張仲景曰消渴病小便反多，如飲水一斗，小便亦一斗，腎氣丸主之，論曰：此病非少陽人消渴也，即太陰

人燥熱也。此證不當用腎氣丸，當用熱多寒少湯加薑本，大黃”

“凡 無論某病人 恭敬其心 蕩滌慾火 安靜善心 一百日則 其病 無不愈 二百日則 其人 無不完”

21. 『東醫壽世保元·少陰人泛論』說 ; “少陰人食消 卽 浮腫之屬而 危證也 不可不急治 當用 芎歸 蘇蘇理中湯”

概括과 比較

四象醫와 中醫에는 消渴證에 대하여 不同한 論述을 하였는데 그것을 比較 歸納하면 다음과 같다.

消渴證에 대하여 四象醫와 中醫는 不同한 稱號가 있다. 즉 中醫에서는 단지 “消渴證”이라고 命名하였지만 四象醫에서는 不同한 象(體質)에 따라 不同한 名稱이 있다. 즉 “少陽人消渴證”, “太陰人燥熱”, “少陰人食消” 등이다.

消渴證의 發病原因에 있어서 中醫는 (1) 飲食不節, 장기적으로 肥 甘, 醇酒厚味를 과식하며 (2) 情志失調, 장기적인 精神刺激으로 인해 氣機가 鬱結되고 진일보 火로 되어 肺胃陰津을 消熾시킨다. (3) 素體陰虛한 基礎에서 房室不節, 勞慾過度를 하는 것이다. 이 病은 主要하게 陰虛가 本이고 潮熱

이 標이며 病變 臟腑는 着重하여 肺胃이며, 關鍵은 腎이다. 病程이 길면 氣陰兩虛하고 陰虛燥熱하면 백가지 證으로 變化한다.

李濟馬는 少陽人消渴證은 少陽人胃受熱裏熱病이라고 인정하였다. 그 發病原因은 主要하게 “病人胸次不能寬遠闊達”, “所見者淺, 所欲者速, 計策鶻突, 意思艱乏”해서 발생하며 그 病機는 “大腸清陽上升氣自不快足, 日月耗困而此病也”, “胃局清陽上升而不快足於頭面, 四肢則上消病, 大腸局清陽上升而不快足於胃局, 則成中消病”, 太陰人燥熱病은 主要하게 “侈樂無厭, 欲火外馳, 肝熱大盛, 肺燥太枯之故也”라고 하였다.

治療原則에서 中醫는 上中下消로 치료하는데 上消는 “清熱潤肺, 生津止渴”하며 方劑는 消渴方을 爲主로 하며 中消는 “清胃瀉火, 養陰增液”하며 方劑는 玉女煎加黃連, 梔子를 위주로 하고 下消가 腎陰이 虧虛할 때는 滋陰固腎方劑는 六味地黃丸을 위주로 하고 下消가 陰陽兩虛할 때는 “溫陽滋腎固攝”의 원칙하에 方劑는 金匱腎氣丸을 위주로 한다.

李濟馬는 消渴證을 治療함에 있어서 不同한 象은 不同한 治療法을 하였다. 少陽人은 우선 먼저 “平心靜思”, “攝身心”, “寬闊其心”을 하게 한 후 上

	四象醫學	中醫學
病名	按四象稱號가 다르다 “少陽人消渴證”, “太陰人燥熱病” “少陰人食消”	消渴證
發病原因	少陽人情志不寬遠闊達 太陰人侈樂無厭	素體陰虛, 醇酒飲食不節, 多食肥甘情志失調 房室不節, 勞慾過度
病機	情志爲本, 燥熱爲標	陰虛爲本, 燥熱爲標
治法	恭敬其心, 蕩滌欲火, 安靜善心 異病同象同治 同病異象異治	清熱潤燥, 生津止渴 清胃瀉火, 養陰增液 滋腎固腎 溫陽滋腎

消는 涼膈散火湯, 中消는 忍冬藤地骨皮湯, 下消는 熟地黄苦參湯, 十二味地黄湯을 사용한다.

太陰人燥熱病은 熱多寒少湯加藁本, 大黃을 사용한다.

少陰人食消는 芎藭蔥蘇理中湯을 사용한다.

무슨 병이나 “恭敬其心, 蕩滌欲火, 安靜善心”이 수요된다.

結 論

糖尿病에 대한 四象醫와 中醫의 論述을 比較해 보면 다음과 같은 結論을 내릴 수 있다.

1. 四象醫와 中醫는 糖尿病에 대하여 각기 다른 病名을 달고 있는데 卽 四象醫는 “少陽人消渴證”, “太陰人燥熱病”, “少陰人食消”라고 부르는데 太陽人消渴證에 대한 記載는 없다. 中醫는 “消渴證”이라고 부르고 “上消, 中消, 下消”로 나눈다. 中醫는 증상에 따라서 病名을 지었는데 糖尿病의 주요 증상이 口消, 消水, 消食, 消瘦하니 消渴證이라 부르고 있다. 四象醫는 象과 증상을 결합하여 病명을 부르고 있다.

2. 中醫는 糖尿病 發病原因을 飲食傷과 內傷으로부터 근본을 찾고 있는데 四象醫는 天稟臟器大小와 性情의 過不及으로부터 그 발병 원인을 찾고 있다.

3. 中醫는 糖尿病 病理機制를 陰陽學說과 八綱

辨證으로 분석하고 그 病變 部位는 肺, 胃, 腎의 陰虛가 根本이고 燥熱이 標라고 하는데 四象醫는 “四象說”로 분석하는데 心理因素와 先天稟特徵을 基礎로 하고 그 病變部位는 肺局, 胃局, 大腸, 頭面, 四肢이고 情志가 根本이며 燥熱이 標라고 여긴다.

4. 糖尿病 치료에서 中醫는 辨證施治를 위주로 “熱則寒之, 虛則補之”하는 原則을 하는데 四象醫學은 心理治療를 위주로 “攝心身, 平心靜思, 寬闊其心”하면서 藥物治療는 體質治療를 위주로 진행하고 치료 原則은 “同病異象異治”, “異象同病異治”, “大腸器瀉之, 小腸器補之”하는 방법을 쓴다. 四象醫와 中醫는 한 개 病에 대해서 發病原因, 病理機制, 治療, 原則, 治療方劑, 藥物構成이 확연이 다르게 전개된다. 四象醫는 中醫와 완전히 不同한 獨特한 特點을 띤 醫學이다.

참고문헌

1. 東垣十書
2. 證治要
3. 東醫壽世保元
4. 黃帝內經 素問
5. 千金方
6. 證治要決
7. 醫貫
8. 景岳全書